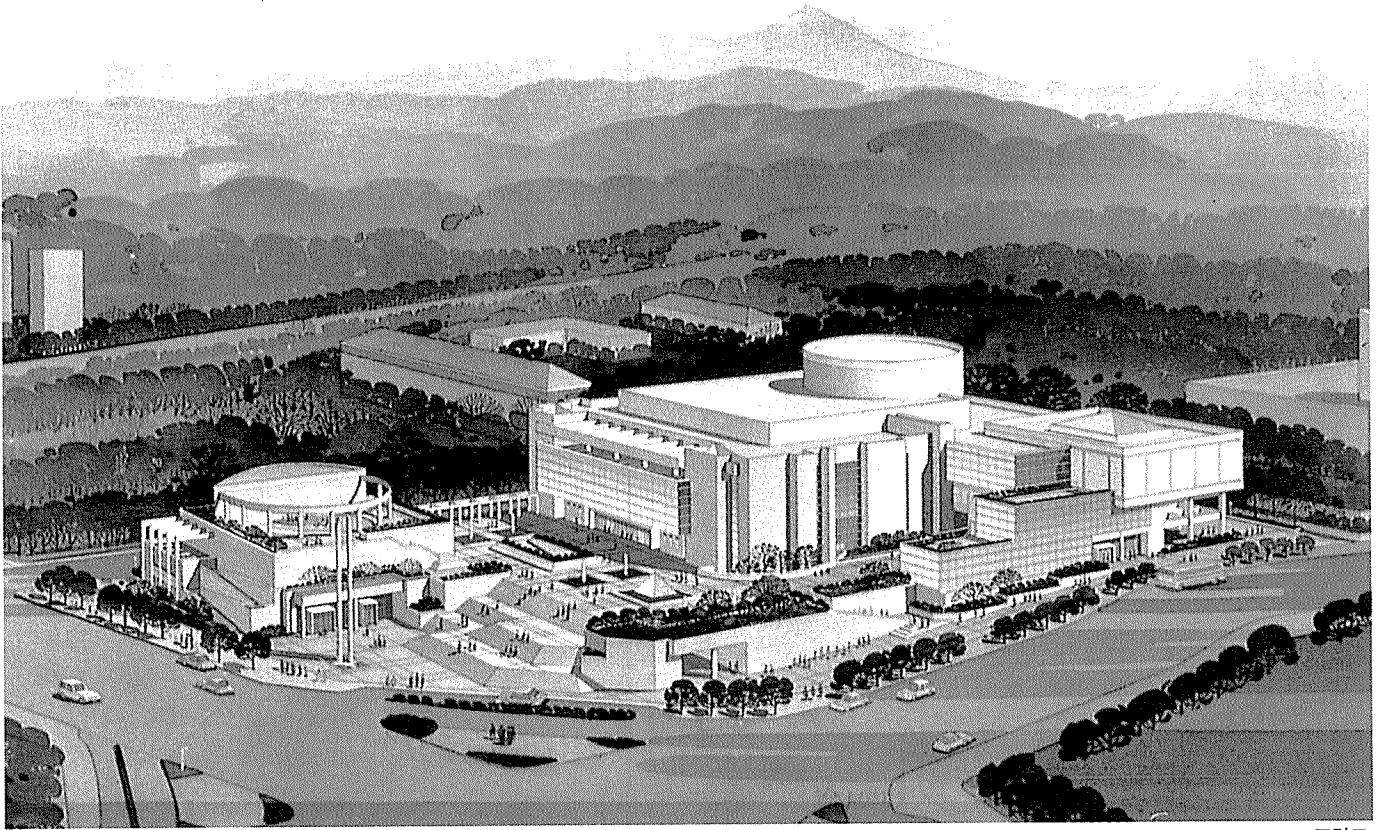


군포 시민회관

군포시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포시의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지역 문화 활동의 구심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의 전당으로서 시의 상징성을 갖는 건물을 계획, 현상설계공모를 실

시하였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부림종합건축안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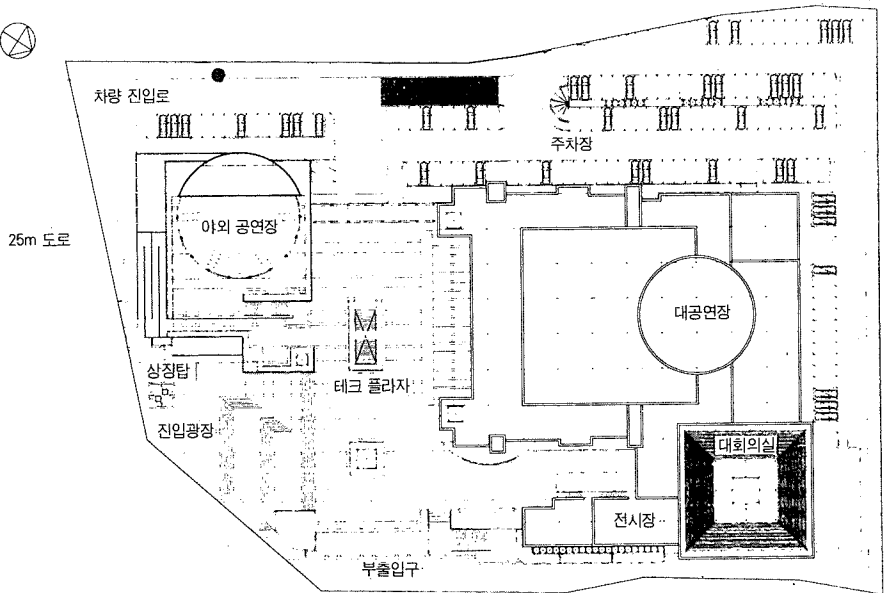


조감도

당선작

부림종합건축(안)
(대표: 김 호)

대지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381
 지역 /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16,971.9㎡
 건축면적 / 4,768.98㎡
 연면적 / 13,846.13㎡
 건폐율 / 28.06%
 용적률 / 53.40%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 260대(법정 250대)
 외부마감 / 화강석 비너구이



25m 도로

배치도

군포 시민회관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군포시의 문화 예술 공간의 확보와 지역 문화 활동의 구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형태는 문화의 전당으로서 시의 상징성을 갖는 건물로 계획되었다.

전체 배치 계획으로는 대지 남동쪽 25m 전면도로를 주출입구로 시민광장에 연계시켜 소공연장 및 야외 공연장, 대공연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연 출연자 및 회의, 사무 용무의 비관람자들을 위해 주출입구 반대편에 부출입구를 두어 동선의 분리를 의도했다.

시민 광장은 대극장 전면 테크 상부에 배치하여 대지내 외부 공간의 구심점과 시민들의 만남과 휴식의 장소가 되도록 하고 시민광장에서 내부로 통하는 콘코스를 설치하여 내·외부 공간 사이의 유기성을 갖도록 했다. 또한 대공연장은 1,600석 규모의 다목적 홀로 객석의 발코니 형식으로 각층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공연장은 400석 규모로 상부 옥상에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연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속동의 지하에는 전시실을, 1,2층에는 문화원 및 예총산하 각종 단체, 3층에는 통역실을 갖춘 국제 회의장 규모의 대회의장이 배치된다.

입면은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과의 조화와 건물 전체의 통일성에 의한 질서정연한 패턴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